

# 輸入開放壓力和 원貨切상에 따른 우리의 對應

— 競爭力強化를 위한 체질強化와 構造改編을 —



宋 基 澈

〈高大 教授·經博〉

## 좋았던 '86經濟

半萬년에 貧困을 씻고 우리도 남 못지않게 잘 살아가자는 經濟第一主義 哲學에 바탕을 두고 우리가 經濟開發을 시작한 것은 1962年이었다. 그 이후 '79年의 第2次 石油波動과 10.26事件에 이은 '80年의 混亂期를 거쳐 '81年의 調整期를 거쳐 '82년부터 또 다시 經濟開發에 努力을 한 결과 '86년에는 우리 經濟環境의 3低란 他助와 결들여 우리 自信의 自助의 힘이 합쳐져서 우리 經濟는 우리 經濟史上 類例가 없었던 좋은 한 해를 맞게 되었다.

'86年을 좋았던 한 해로 보는 理由는 첫째 우선 經濟의 가장 脆弱한 隘路點으로 볼수 있었던 慢性的 國際收支赤字에 終止符를 찍고 國際收支面에 있어서 47億弗이나 黑字를 냈다는 事實이다. 貿易收支黑字가 42億弗에다가 貿易外黑字가 6億弗, 海外送金 10億弗로 이루

어진 國際收支黑字는 '87年에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해서 黑字基調가 確立되어 黑字時代의 到來란 말까지 나오게끔 되었다.

'86年에 있어서 우리 經濟는 投資財源自立元年이 되기도 했다. 우리의 總貯蓄率이 33%에 이르렀는데 그 중에서 30.2%의 投資를 했고 나머지 2.8%는 外債償還에까지 充當하게 되었으나 아직 日本이나 自由中國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進一步한 대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以外에도 연속 6年 豐年이 된 일 역시 評價되어야 할 일이다. 물론 이것은 順風順雨함으로써 이루어진 일이라는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그 동안에 推進해 온 물을 다스리는 일, 즉 水利事業이 상당히 進捗이 되어 그의 效果를 거두기 시작했다는 것을 높이 評價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世界 第12位의 貿易國家가 되었다든지 또 國民所得이 1,000億弗에 이르고 1人當 國民所得이 2,300弗에 이른것 등은 '86 우리 經濟를 「좋았던 經濟의 한 해」로 보는 理由로 우리 經濟의 陽地를 評價할 수 있다.

## 우리 經濟의 陰地

우리는 經濟第一主義를 바탕으로 해서 그 당시의 여러 經濟與件에 비추어 不可避한 面이 없지 않았으나 「先成長 后分配戰略」을 펴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은 쪼개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덩어리가 없으니 우선 덩어리를 만들자 하

다 보니 뒤에 適切한 分配手段이 뒤따르지 못하다 보니 經濟陰地가 나올 수 밖에 없었다.

우선 非經濟的 陰地로서는 經濟成長만큼 非經濟分野라 할 수 있는 우리 精神的 側面과 政治的 側面 그리고 社會的 側面이 均衡 成長하지 못 한 것을 指摘치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를 非經濟的 分野라고 해서 成長을 안한 것은 아니로되 經濟的 飛躍의 量的 成長에는 못 미친다는 뜻이다.

또 「先成長 后分配戰略」을 推進하다 보니 現在의 時點에 와서는 「富의 分配」에 관해서 階層間에 分配均衡에 관해서 不平 不滿이 있다는 現實도 看過할 수 없다.

더군다나 局限된 적은 資源을 갖고 經濟開發을 하다 보니 各分野에 고루고루 資源配分을 할 수 없고 보다 더 附加價値가 높고 보다 더 經濟效率이 큰 分野에 資源을 集中投資할 수 밖에 없는 「不均衡成長戰略」을 펴다 보니 햇빛을 본 分野와 그러지 못 한 分野에서 不均衡에 대한 不平 不滿이 나오게끔 되었다. 예를 든다면 都市와 農村, 大企業과 中小企業, 輸出分野와 內需分野 등 地域間, 産業間, 企業間 등에서 그것을 들 수 있다.

또 이러한 基本戰略에 따라 積極的으로 推進된 戰略이 工業化戰略 특히 輸入代替産業部門의 工業化戰略이 追求되었고 그것이 어느水準에 이르자 그를 中心으로 한 輸出戰略이 強力하게 追求되었다. 그리고 이들 여러 經濟戰略은 短時間內에 남이 몇 100년에 걸쳐서 이룩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 자연히 政府主導下的 개발계획을 推進하다 보니 잘 마련되어서 成功作을 이룬 경우가 많이 있었지만 예를 든다면 浦項製鐵 등과 같은 것도 있었지만 또 拙速으로 마련되어 失敗作으로 끝난 경우, 예를 든다면 海運産業育성과 后期의 中東海外建設進出戰略 등과 같은 경우도 있어서 우리 經濟에 적지 않은 큰 傷處를 남긴 경우도 있어서 이들

은 經濟陰地로 指摘하지 않을 수 없다.

하여간 이러한 經濟開發戰略을 推進할 수 있었던 바탕은 우리 民族과 우리 國民의 資質을 높이 評價하는 「하면 된다」는 Can do Spirit라 할 수 있다. 이 Can do spirit가 잘 發揮되어 韓國的 能率이 提高되어 많은 成果를 얻은 것이 事實이지만 또 이 精神이 過用, 誤用, 濫用됨으로써 많은 試行錯誤를 가져왔던 것도 否認할 수 없는 엄연한 現實이었다.

## 여러 潛在伏兵

이런 여러 經濟陰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86년부터의 우리 經濟는 世界各國이 볼 때엔 두들어진 큰 成果를 얻고 있는 것으로 높은 評價를 받고 있다.

그러나 問題는 '86년에 이어 '87년은 말할 것도 없고 '88년에 二大行事を 大過없이 치룬 뒤에 '89년 '90년으로 이어져 '90年代 아니 2千年代에까지 계속 黑字時代를 바탕으로 해서 均衡잡힌 좋은 經濟가 持續될 수 있는 環境下에 있으며 또 우리의 經濟體質이 改善 強化되고 있느냐에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86년의 좋은 經濟란 一般的으로 이야기 해서 3低란 他助에 의해서 주로 이루어 졌다는 것이 衆論이다. 이 3低란 말할 必要도 없이 低油價, 低弗貨, 低國際金利를 이야기 하는 것인데, 이 3低의 效果가 우선 '87년에는 조금씩 褪色해 가는 國際環境에 우리는 注目해야 한다.

우선 石油價格이 '86년에 7~8弗의 最低價에서 오르기 시작 이제는 20弗線에까지 肉薄하고 있다. 더군다나 非盛需期에의 原油價格上昇은 앞으로 닥쳐올 冬期の 盛需期를 생각할 때에 第2次 石油波動 때와 같지는 않더라도 이제 低油價時代는 끝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한다. 產油國이 低弗貨의 補償

정도로는 最少限 올라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 깊이 留意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美國 弗貨의 下落이 '87年에도 계속이 되고는 있으나 '86年의 下落勢에 비하면 弱化되고 있는 반면에, 우리와 密接한 關係가 있는 日本 円貨의 切上은 '86年 보다 더 急해 지고 있으며 특히 우리에게 아주 아픈 것은 우리 元貨의 切上壓力이 強해져서 '86年末에 861원이던 元貨가 벌써 827원대로 되었고 이리 가다가는 '87年末에는 800원대가 깨져서 790원에서 780원으로 급속히 切上되어 그러지 않아도 國際原資材價格이 오르고 있으면서 早期 單價契約으로 收支惡化가 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美國 弗貨弱勢에 의한 効果도 減殺되고 있는 셈이다. 거기에다가 美國의 金利도 올라가고 있다. 美國의 대출金利 8%가 8.25%로 上昇하고 있어서 이제 低金利時代로 서서히 떨어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주기도 한다.

이런 3低效果가 減少하면서 逆3低時代 혹은 新3高時代로 들어 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憂慮를 자아내고 있는 마당에 우리 經濟가 直面하고 여러 特殊한 어려움까지도 겹쳐져서 우리 經濟를 앞으로 낙관만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現實이다.

우선 우리 經濟가 가장 密接한 關係에 있는 美國에서는 '86, '88 政治 選舉의 해를 맞아 政治 選舉 熱風이 불고 있다. 美國이 재채기를 하면 日本이 毒感이 들고 우리가 肺炎을 앓는다는 俗說이 있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는 美國의 政治 選舉 '88肺炎을 앓고있다고 할 수 있다.

第2次 世界大戰 직후世界를 政治的 軍事的 經濟的으로 마음대로 주물러 댈 수 있었던 美國이 이전 옛날의 美國이 아니면서 많이 弱化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莫強한 美國 潛在力을 無視해서는 아니되며 또 지금도 美國

은 超強大國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지금 美國은 옛날의 健全한 淸教徒의인 프로테스탄티즘이 弱化되면서 經濟面에서의 勢力이 많이 弱化되어 가고 있다.

지난날 美國이 世界經濟에서 차지했던 經濟力이 예를 들어 지금은 비유적으로 이야기 해서 25% 정도로 弱化된 것으로 말할 수 있다. 그러면 누가 50%를 먹어 갔느냐가 問題가 된다.

가장 큰 몫은 역시 日本이 먹어 갔으며 캐나다와 西獨 그리고 台灣과 우리 韓國도 약간 먹어 온 것이 事實이다. 第2次世界大戰 후만 하더라도 우리는 美國의 救護物資와 援助 借款 등에 의해서 지탱해 온 우리가 이제는 自動車, 電子製品, 鐵鋼材, 纖維製品 등을 輸出해서 '85년에는 43億弗, '86년에는 71億弗, '87년에는 그대로 팽겨쳐 두면 90億弗 정도의 對美黑字를 낼 것 같아서 그의 減縮에 많은 神經을 쓰게끔 世上은 逆轉된 느낌이다. 美國으로 볼 때에는 超強國의 受侮로 받아 들이고 있으며 따라서 이를 逆轉시킬테니 나를 國會議員으로 當選시켜 달라는 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다.

이런 美國經濟의 事情을 背景으로 해서 主로 日本을 對象으로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지금 日本은 너무나 커져서 좀처럼 그 壓力이 먹혀 들어가지 않고 있어서 우리에게 經濟壓力이 集中되어 가고 있는 느낌이다.

이에 우선 첫째 高壓力은 높은 對美輸出障壁을 쌓는 일로 보여진다. 美國은 지금 우리에게 대해서 對美輸出을 凍結시키거나 對美輸出量을 減縮시키거나 其他 여러가지 輸出障壁을 마련해서 그를 높여가고 있어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이것은 電子製品과 纖維製品 등의 雜製品이나 輕工業製品分野에서 두드러진 現象이다.

그 다음은 美國에서의 우리에게 대한 輸入自由化開放壓力이다. 美國이 競爭力이 있다고 생각

되는 業種이나 物品에 대해서 우리들에 대한 輸入自由化 開放化 壓力이 아주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 우리도 輸入自由化幅을 넓히는 作業을 進行시켜 온 것이 事實이지만 그를 大幅修正 改편하는 方向으로 나아가고 있다.

美國은 '85년에 美國通産法 301條의 不公正去來行爲를 하는 나라의 不業行爲에 報復行爲를 加한다는 名分아래 우리에게 대한 輸入開放化壓力을 本格化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生命保險産業의 開放, 損害保險産業의 同一待遇, 映畫配給의 公正去來, 金融産業의 優待등 그들이 갖고 있는 서어비스 優位産業에 대한 各種開放化壓力을 加速시키고 있다.

또 美國은 生産面에서 볼 때에 第1次 産業 특히 農林水蓄産面에서 많은 國際優位를 유지하고 있어서 美國 農産物과 蓄産物의 輸入開放에 특히 力點을 두고 있다. 예를 든다면 오렌지라든가 쇠고기 등이 바로 그것인데 이것은 우리 농민과 蓄産業者와의 關係가 妙해서 상당한 부담이 있는 것이 現實이다.

美國이 鐵鋼, 造船, 電子, 纖維, 自動車 등 一部 民生産業部門에서는 競爭力을 잃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最高尖端分野라든가 혹은 防衛産業分野에서는 역시 世界 最高水準을 維持하고 있어서 이 分野에서의 積極的 구매와 開放을 要請하고 있는 것이 現實이다.

이를 高輸出障壁과 高輸入自由化壓力이 우리 經濟에 直間接으로 미치는 影響은 적지 않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해당 産業이나 該當企業에 影響을 미치는 것이고 또 輸入自由化는 우리 國民들의 意識이 높아져서 開放되어 輸入된 商品을 사서 쓰지 않으면 그 影響은 전혀 없거나 部分的으로 그칠 수 있다.

그러나 全面的으로 直·間接적으로 影響이 큰 것은 우리 원貨의 切上이라 할 수 있다. 美國에서는 輸出障壁을 높이고 또 輸入自由化 開放壓力을 加했을 때도 그 實効가 크게 나타나

지 않자 이제 들고 나온 것은 換率切上壓力이라 할 수 있다.

美國의 弗貨는 지난 날 世界의 通貨로서 그의 威勢가 當當했으며 實質적으로 항상 높은 價值水準을 維持했었다. 通貨는 그 나라 經濟의 얼굴이라는 表現도 있듯이 美國의 弗貨로 美國經濟의 弱勢化로 弱勢傾向을 보이고 弗貨下落이 두들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美國의 弗貨弱勢는 美國經濟의 弱勢를 보이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느 面으로 볼 때면 戰略적으로 美國弗貨를 弱勢로 몰아 美國의 輸出力을 增強시키고 相對國家의 輸入力을 強化시켜 國際收支上의 均衡을 잡아 보자는 데에도 큰 뜻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經濟로 볼 때에는 二重의 負擔을 現在 안겨 주고 있다. 우선 日本의 円貨가 急激하게 上昇하고 1弗당 120円線 이 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핏 보면 對日輸出增大와 對韓輸入抑制가 될 것으로 理論적으로 되어 있지만 現實적으로 볼 때면 對日輸入이 急激히 늘어 나서 '87年 6月엔 그 逆調額이 6億弗을 넘어 史上 最高를 보이고 있으며, 輸出도 생각만큼 늘어 나고 있지 않는 것이다. 이리하여 對日貿易逆調은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對日經濟依存型 經濟體質에서 온 것이고 거기에다가 円貨切上幅이 커서 우리의 對日輸入量은 우리의 對美黑字幅 增大와 결들여서 늘어 나고 있으며 이들 價格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對日貿易赤字幅은 늘어만 가고 있다.

우리 經濟의 脆弱點은 部分品 分野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輸出品中 우리는 組立力 生産力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중 該心部分品은 아직도 우리가 技術力이 弱해서 日本에 依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며 이것이 一朝一夕에 解決될 수 없다는 데에 우리의 어려움이 있다.

우리 經濟의 脆弱點이 部分品分野 뿐만이 아니라 素材部門 그리고 設計部門 즉 엔지니어링 部門에도 있는 것으로 안다. 물론 이들을 많이 先進諸國에 依存하고 있는데 先進諸國 중에서도 특히 日本에 더 많이 依存하고 있어서 이에의 隸屬에서 脫皮하는 일이야말로 또한 時急한 일이지만 이야말로 超技術力을 必要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相當한 歲月과 財源 人力面에서 많은 集中投入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가 '86年の 經濟가 好調였었고 거기에다가 「좋다 좋다」소리가 크다 보니 一部 知覺없는 사람들은 아 이젠 쓰고 보고 마시고 보고 놀고 보자는 식으로 우리 經濟가 풀어야 할 問題가 많다는 생각을 감박 잊고있는 경우도 없지 않다. 또 그렇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緊張이 많이 풀리고 느긋해 하는 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現實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과연 우리 經濟는 그리 安心만 할 수 있는 與件이나 하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筆者의 意見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4月末 現在로 아직 빛이 448億弗 정도 아직도 남아 있고 그 중에 短期惡性外債도 약 70億弗 정도나 남아 있다는 現實을 우리는 直視해야 한다. 이 外債를 놓고 一部에서는 이의 早期償還에 異議를 提起하면서 外債를 갚느니 보다는 新銳設備나 機械를 導入해서 企業體質과 經濟構造 改善과 強化에 投入하는 것이 여러모로 身望스럽다는 主張을 하는 사람도 있다.

또 한편에서는 外債를 빨리 갚아야 한다는 主張을 펴기도 한다. 筆者의 所見으로는 外債중 短期惡性外債償還은 서둘러야 하며 한편으로 有利한 條件으로의 短期惡性外債借還이 努力이 결들여 이루어 지면서 一部資金을 갚고서는 우리 企業體質과 經濟構造改善과 強化에 投入시키는 절충型이 마땅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야 한다. 어느 쪽이든 問題는 우리가 아

직도 莫大한 外債를 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節制와 儉約 그리고 勤勉의 姿勢를 흐트러서는 아니되며 우리가 죽 그런 姿勢를 堅持시켜야 하겠지만 적어도 90年代까지로 이어 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3低의 效果가 褪色되어 가는 徵條가 보이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姿勢를 다시 한번 가다듬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다음으로는 우리의 消費姿勢가 흐트러져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우리의 總貯蓄率이 높아져서 投資財源自立元年을 '86년에 맞게 되었지만 우리의 家計貯蓄率은 先進貯蓄國인 日本이나 台灣에 비해서는 우리가 그들의 半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는 點으로 判斷한다면 平均의 으로 볼 때에 우리 家計의 消費는 相對的으로 볼 때에 高消費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우리의 大部分 家計는 아주 熱心히 살고 있어서 이 以上 더 죄는 이야기를 하기가 속스러운 경우가 一般的이다. 그러나 總體的으로 볼 때에 우리가 先進貯蓄國에 비해서 떨어져 있는 것이 現實이며, 특히 一部 富裕家計에서의 高消費推勢는 嚴戒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우리의 對應

그러면 이런 우리 經濟는 陽地와 陰地 그리고 많은 伏兵이 潜在해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對應策을 마련 과감하게 實施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黑字基調가 '86年の 一回性에 그치지 않고 '87, '88년에 이어 '90年代로 이어지는 黑字基調를 確立해야 한다. 그러면서 우리 人類에 꼭 必要한 物件을 나 만이 生覺하고 그것도 값싸고 좋은 物件을 有利한 條件으로 提共만 한다면 俗된 말로 「장사」 즉 비즈니스가 되지

않을 理由가 없는 것이다.

우리 人類의 꼭 必要한 物件이란 概念이 지난 날에는 衣食住關聯인 경우가 絶對的이었었다. 물론 지금도 그것과 關聯되는 商品이 우리 人類에게 꼭 必要한 物件임은 더 말할 必要가 없다. 그러나 社會가 보다 高度化되고 複雜化함에 따라서 이들 關聯商品도 內容이 많이 달라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範圍도 擴大되고 있다. 그리고 從前에는 奢侈品이나 非生活必須品으로 생각되고 있던 것이 이제는 生活必須品化해서 우리 生活에 없어서는 아니 될 商品으로 되고 있는 것이 現實이다. 예를 든다면 電子製品이나 自動車用品 등과 같은 것이 그런 것으로서 따라서 産業界로서는 그의 企業經營上 鼓舞的인 面이 없지 않다. 그리고 나만이 生産한다는 것은 特許權을 갖는다든지 技術革新을 남보다도 몇 발 앞서 가는 일을 뜻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企業은 이제 살 길은 技術革新 밖에 없다고 말 할 수 있다. 그리고 값싸고 좋은 物件이란 原價節減에 의해서 一般大衆이 손이 못미치든 商品들도 原價節減에 의해서 低廉하게 供給됨으로써 大衆商品化해서 薄利多賣가 되도록 하는 戰略을 뜻하는 것이다. 또 좋은 物件이란 徹低한 品質管理에 의해서 完全無缺한 品質의 商品일 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機能과 보다 손쉬운 操作 보다 安全하고 故障이 없는 등등 보다 좋은 物件이란 그 뜻이 굉장히 多義에 걸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위에 보다 有利한 條件이란 代金支給條件이라든가, 運搬條件, 保險條件, 애프터 서어비스條件 등등 去來條件과 關聯해서 他國 他社보다 有利한 條件을 이야기 하는 광범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여러 條件을 갖추어진 商品이 提供되는데도 비즈니스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생각이 된다.

이런 原理에 立脚해서 비즈니스를 잘 하고 있는 企業과 國家는 바로 日本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의 商品이 이러한 魅力과 條件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個個 企業 특히 競争力이 弱한 中小企業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日本國家 全體로는 비즈니스가 잘 되고 있으며 莫大한 黑字를 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現實을 立證해 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예를 든다면 '86年 2月의 日本貿易黑字는 31億弗이었었는데 円貨切上이 아주 많이 되고 對日貿易障壁이 強化되었음에도 불구하고 '87年 2月의 日本貿易黑字는 자그만치 2倍가 넘는 71億弗이 되었다는 事實은 바로 이를 如實히 立證해 주는 일로 보여진다.

우리는 이런 境地에 이르기 까지 企業體質과 經濟構造를 改善 強化시켜야 한다. 물론 이러한 일이 一朝一夕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를 위해서 우리의 環境適應力強化와 商品力, 人材力, 資本力, 生産力, 市場力, 綜合管理力, 理念力, 등등을 強化 培養 提高시킴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는 어떤 일이 터지면 對症療法式으로 그때그때에 臨해서 임기응변식으로 땀질하려는 경우가 적지 않으나 우리는 모든 것을 原理原則에 立脚해서 順理에 따라 풀어 가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것은 企業經濟의 경우 더욱 더 그러함으로 우리 企業의 體質強化에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안다.

우리는, 經濟를 純粹經濟로 보는 見解가 있다. 그러나 現實經濟는 그것이 政治經濟, 社會經濟, 心理經濟라 할진데 우리의 企業經濟와 國民經濟를 經濟的 側面, 企業經濟的 側面에서만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는 좀더 深刻하게 생각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 거의 모든 國民은 經濟成長에 걸맞게 우리의 政治的 側面과 社會的 側面 그리고 意識的 側面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으며 이것이 우리의 經濟成長 혹은 우리 經濟 어려움을 가져오는 經濟伏兵에의 對應에 있어서 最大 隘路要因이

되고 있음을 強調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經濟問題를 純粹한 經濟問題로 풀어나가야 하겠지만 우리 經濟問題와 企業問題가 純粹하고 그리 풀릴 수 있도록 政治的, 社會的, 靜神的 環境要件의 整備가 그 무엇 보다도 時急함을 역시 強調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제 우리 經濟構造나 體質로 보아서 소위「몸으로 때우는 經濟」즉「勞動集約的 經濟發展」이란 이제 한물 간 느낌이 없지 않다. 앞으론 우리 經濟와 企業도 머리로 때우는 經濟와 企業으로 體質을 強化하고 構造를 改編하여야 한다.

이는 더 말할 필요도 없이「머리로 때우는 經濟」란 부단한 技術革新을 바탕으로 하는 高度의 產業構造로의 改編을 뜻하는 것으로서 附加價値가 높으며 競爭力을 갖출 수 있는 最新銳 最尖端企業과 產業으로의 轉換으로, 例를 든다면 浦項製鐵과 같은 會社 혹은 浦鐵의 光陽工場과 같은 製鐵產業, 製鐵企業, 製鐵工場의 水準으로 까지 모든 產業과 企業 그리고 工場을 끌어 올리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이 말로는 쉽지만 現實的으로 볼 때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며 따라서 現實的으로 可能性이 있는 業種 企業 工場을 集中的으로 그런 水準으로 끌어 올리는 努力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의 基本은 어디까지나 技術力의 強化에 있다고 보여진다. 우리의 脆弱部門인 部分品產業, 素材產業, 엔지니어링產業, 이 모두들은 脆弱한 技術力 때문에 오는 것이라는 데 着眼하여 이의 增強에 盡力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제「世界속의 韓國」 「韓國속의 世界」란 말이 걸맞도록 國際化, 自律化, 開放化되어 가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推勢는 더욱 더 促進될 展望이다. 그러면 이러한 推勢에 걸맞도록 우리의 意識理論, 行動 등이 으

것하게 어른스러워져 가고 있는나에 대해서 우리 自身에 대한 깊은 反省이 있어야 하겠다.

率直히 이야기해서 世界人으로서 國際人으로 우리가 아직도 으젓한 面이 不足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깊게 한다. 이런 뜻에서 우리의 思考方式이 좀더 洗鍊되어져야 하겠다. 그리고 우리의 國際語의 驅使 能力面에 있어서 좀더 向上이 되어야 하겠으며 우리의 行動 舉止에 있어서 매끈하고 깔끔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여러 努力은 總體的으로 볼 때에 우선 政府가 的確하게 우리가 놓여 있는 自然的, 政治的, 經濟的, 社會的, 技術的 環境등 뿐만 아니라 空間的으로 볼 때에 國際的, 國內的, 業界的, 環境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環境을 豫測하고 우리에게 適切한 施策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지난 날을 돌이켜 본다면 時宜 的確한 施策이 없었던 것이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선 試行 錯誤를 되풀이한 경우도 적지 않았으니 제발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어선 아니될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도 앞으로의 經濟施策을 놓고 意見이 엇갈리는 경우가 없지 않다. '86년과 같은 好況이 短期性이나 혹은 長期性이나에 대한 豫測이 엇갈리고 있으며, 이런 基本的 豫測의 差違에 따라서 앞으로 펼칠 施策에 대해서도 큰 意見差가 있어서 外債償還問題라든가, 自由化幅의 擴大問題등 여러 論題에 걸쳐 論議가 있는데 어느 見解가 옳은 것인지는 時間이 흘러야 알 일이기는 하지만 時間이 흐른 다음에는 時機를 잃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어야 말로 失機와 試行錯誤가 없어야 하겠다는 것을 強調하고 싶다.

다음으론 企業이 할 일인데 그것은 이미言及한 바 있지만 우리 人類에 꼭 必要한 物件을 우리 企業 홀로만이 만들되 그것도 값싸고 좋

은 物件이되 有利한 條件으로 國內外에 걸쳐 提供할 수 있을 정도의 莫強한 國內外競爭 體質을 強化시키는 일에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이에는 企業 自體의 努力이 基本이 되지만 政府와 國民도 이에 協助해 주어야 한다.

國民들로서는 自由化가 擴大되고 있음에 비추어 더욱 더 國產品愛用에 힘을 기울여야 하며 더욱 더 熱心히 일하면서 家計貯蓄率을 높여야 한다. 물론 우리의 많은 家計가 모두 熱

心히 살고 있지만 우리 家計貯蓄이 台灣이나 日本보다 많이 떨어진다는 現實을 우리는 反省해야 한다.

經濟의 原理란 素朴한 것이 熱心히 일하면서 節儉하는 生活로 貯蓄을 많이 하면서 머리를 써가면서 熱心히 사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에 3位1體的 努力만이 輸入開放 元貨切上을 克服하는 對應策으로 생각된다.

**6·25 체형 교훈심아 대공투쟁 앞장서자.**